

정보보호 체계 재정비 등 신뢰회복 최우선 ‘본질에 집중’

2026 카드사 생존전략

신한카드

카드업계가 수익성 둔화와 정부 규제 강화, 경쟁 심화가 겹치면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 기조와 금리 변동성,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서 기존 수익 모델은 한계에 직면했다. 카드사들은 비용 구조를 재정비하는 한편, 디지털 금융 환경에 대비해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나서고 있다. 각 카드사가 돌파구 모색을 위해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신한카드는 새해 내실경영 기조를 강화한다. 연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서 기업 리스크가 부각되자, 대외적으로 신규 사업 전략을 천명하기보다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조용히 내부 체질 정비에 나선 모습이다.

◆ 신년사 생략…‘본질’에 집중

올해 박창훈 신한카드 사장은 2026년 공식 신년사를 생략했다. 매년 신년사를 공개해 오던 과거와는 다른 행보다. 사업 확장 전략보다는 내부 경쟁력 재정비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 비전보다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지다.

내부 경쟁력 재정비의 큰 틀은 마련

정보유출 이상징후 실시간 탐지 출력물·화면 촬영 추적 시스템 등 정보유출 사태 직접적 후속조치 2개부서 통합 ‘영업기획부’ 출범

됐다. 신한카드는 신년 전략으로 본질에 집중하는 방향을 택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본질에 집중하는 것을 2026년 전략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 금융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장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신한카드 본사와 박창훈 사장.

/신한카드

설명했다.

◆ 내부통제 재정비·소비자 보호

신한카드는 새해를 맞아 정보보호 체계 등 내부통제 전반을 재정비한다.

대표적으로 정보 유출 사고 이상징후를 실시간 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또, 정보유출 사태의 직접적인 후속 조치로 카드 영업점

출력물과 업무 화면 촬영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할 방침이다.

하반기 인사에서도 경영 방향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12월 말 소비자보호본부장에 김종화 전 무를, 테크그룹장에 윤승원 상무를 신규 선임했다. 고위직 인적 쇄신을 계기

로, 올 한 해 소비자 보호와 정보보호, 정보기술(IT) 강화 기조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카드 결제 사업 등 본업 경쟁력 강화 기조도 이어간다.

앞서 신한카드는페이먼트대응력 제고를 핵심 메시지로 내세우고, 하반기 조직개편을 단행했다.페이먼트 기술을 개발하는 ‘페이먼트 R&D팀’과 영업 전략을 총괄하는 ‘영업기획팀’을 ‘영업기획부’로 통합했다. 기술 개발과 영업 핵심 전략 부서를 통합해 조직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한편 수익성 개선은 여전히 숙제다. 특히, 삼성카드가 신한카드를 바짝 추격하는 형세로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신한카드의 외형 성장 및 내실 다지기가 동시에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 3분기 신한카드 누적 당기 순이익은 3804억원으로, 삼성카드(4973억원)에 누적순이익 기준 업계 1위 자리를 내준 바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베트남 시작 아시아 보험교육 리더 도약”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간담회

“연수원 창립 60주년 첫 해의 진출 인니 등 아시아서 온라인사업 확대”

“AI 학습 시스템을 접목해 아시아 온라인 보험 교육 리더로 도약하겠다. 그 시작은 베트남이다.”

보험연수원이 올해를 ‘글로벌 온라인 교육’ 확장 원년으로 설정했다. 창립 60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 보험교육 시장에 진출한다는 포석이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13일 ‘2026년 기자간담회’에서 베트남을 첫 진출국으로 제시하고 인공지능(AI) 자회사 설립과 상반기 디지털 자산 결제 인프라(X402) 구축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원장은 “해외 보험 교육 시장 진출은 연수원 창립 60년 만에 처음”이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베트남을 첫 글로벌 진출 국가로 선정해 사전 조사를 진행했고, 수요와 성장 잠재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사업은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보험사(DB손해보험·한화생명 등)와 협력을 논의 중이다. 베트남에 이어 인도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13일 ‘2026년 보험연수원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주형 기자

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로 온라인 교육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 원장은 보험연수원 온라인 교육의 경쟁력을 근거로 해외 확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하 원장은 “연수원 수입의 약 70%가 온라인 교육 수입”이라며 “베트남 사업은 진출 국내 보험사들과 구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보험연수원은 AI 자회사 설립도 공식화했다.

하 원장은 “AI와 디지털 자산 등 새로운 금융질서를 선도하기 위해 연수원은 AI 자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관 개정 등 내부 승인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보험연수원은 AI 시험출제 시스템과 AI 학습운영 시스템(LMS) 기술을 개발해 왔고, 현재는 사업모델을 정교화하는 단계다. 자회사 설립 준비 과정에서는 해외 AI-LMS 전문기업 위즈덤 가든(Wisdom Garden)을 포함한 2개 기업이 투자 의향서 작성 단계이고 추가 기업과도 협의 중이다.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는 상반기 중 결제 인프라 구축과 학습 인센티브 제도를 동시에 추진한다. AI 에이전트 자동결제 시스템인 X402 프로토콜을 도입하고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될 경우 X402 상용화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런투언(Learn to Earn) 개념을 학습 과정에 도입한다. 모바일 교육과 AI 퀴즈 등을 연계하고 학습 성과에 따라 디지털 자산을 지급하는 ‘마이크로 장학금’ 제도를 도입한다. 싱가포르 블록체인협회와의 공동 자격증·교육과정 개발도 추진한다.

하 원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제도화에 발맞춰 올해 상반기에 수강료를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카카오뱅크, 17일 밤 시스템 업데이트

체크·미니카드 금융거래 일시중단

카카오뱅크가 오는 17일 오후 11시 50분부터 18일 오전 7시까지 카드 시스템 업데이트에 따른 점검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스템 최적화, 전산 장비 업그레이드 및 교체 등 카드 시스템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한다.

작업이 진행되는 새벽 시간 동안에는 체크카드 및 미니(mini) 카드를 이용한 금융거래 전반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업무는 ▲체크·mini 카드 발급 및 해지 ▲국내 및 해외 온·오프라인 결제(결제 취소 포함)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 ▲카드 이용 정지 및 분실 신고 ▲mini카드 티머니 서비스(충전 등) ▲고객센터를 통한 카드 관련 상담 및 업무 처리 등이다.

다만,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기능은 점검 시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제휴 신용카드인 ‘카카오뱅크 줍줍 신한카드’의 모든 서비스는 정상 운영된다. 서비스 중단 예정 시간은 약 7시간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내년 보험사 재무건전성 판단 요건 도입

금융위 ‘기본자본 키스 50%’ 설정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지급여력비율(K-ICS·키스) 규제에 ‘기본자본 키스 50%’ 요건이 새로 도입된다.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사는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기본자본 비율 기준을 50%로 설정하고, 오는 2027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50%의 기준은 시장위험 발생에 따른 자본 변동, 키스 취지상의 기본자본 한도 해석, 해외 및 기타 권역과의 비교를 통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키스 비율은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상황을 가정해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키스의 구성 요소인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과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으로 구성된다.

키스 비율은 모든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산출 시 사

용되는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자본금, 이익잉여금 등)’과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에 의존해 자본 키스 비율을 확대하는 만큼, 손실 흡수력이 충분한 기본자금으로의 구성을 유인하고자 이번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기준비율의 50% 미만인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기본자본비율이 0~50%인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0%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한다.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 시 기본자본 비율 유지 요건도 마련한다.

보험사가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면 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80% 이상이거나, 상환 후에도 기본자본비율이 50% 이상으로 치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조기상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안유진 담은 ‘하나 나라사랑카드’ 첫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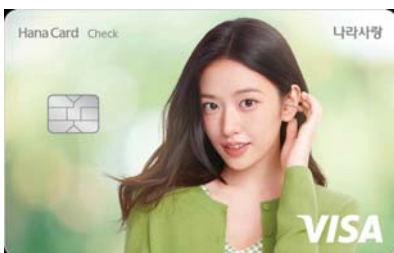
카드 배송시 안유진 자필엽서 동봉

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모델인 아이브(IVE) 안유진의 사진을 플레이트(Plate) 디자인한 새로운 ‘하나 나라사랑카드(사진)’를 오는 16일부터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안유진 플레이트 디자인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하나 나라사랑카드’

에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군 장병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안유진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담았다. 특히, 카드 배송 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안유진이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자필로 담은 엽서가 카드와 함께 동봉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하나 나라사랑카드가 군 장병들의 실질적인 편의는 물론 정서적인 공감을 이룰 수 있는 대표 나라사랑카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나유리 기자